🔇 [사 대통령직 인수위]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 >

Q

മ

뉴스홈 | 최신기사

[우크라 침공] 테니스스타 머리 "우크라이나 어린이 위해 남은 대회 상금 기부"

송고시간 | 2022-03-09 10:55











임순현 기자 기자페이지



앤디 머리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영국의 테니스 스타 앤디 머리(35)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상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영국 BBC는 9일(한국시간) "머리가 올해 남은 대회에서 획득한 상금을 러시아 침공으로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 어린이 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전쟁 피해 아동 등을 돕는 유엔기구인 유니세프 영국위원회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머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으로 750만명이 넘는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며 "지금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 다.



이어 "무엇보다 아이들의 교육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유니세프와 함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해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고 장비 및 가구를 교체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구호 동참을 호소했다.

1987년생 머리는 한때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 라파엘 나달 (스페인), 로저 페더러(스위스)와 함께 남자 테니스의 '빅4'로 불 린 선수다.

메이저 대회에서 2012년 US오픈, 2013년과 2016년 윔블던 등 세 차례 우승했고, 호주오픈에서는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에 준우승만 5차례 기록했다.

앞서 프로테니스협회(ATP)와 세계여자테니스협회(WTA), 국제 테니스연맹(ITF) 등 테니스 단체들도 8일 우크라이나 테니스연 맹을 지원하고 인도주의적 활동을 돕기 위해 70만 달러(약 8억6천400만원)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 테니스 선수인 다야나 야스트렘스카도 WTA 투어 리옹 메트로폴리스오픈 단식 준우승 상금 1만4천545 유로(약 1천900만원)를 우크라이나 지원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핫뉴스 →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 험 또 불합격

프로야구 LG-SSG전 오심 내린 심판, 2군 강 등 징계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 범이 밝힌 '그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한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한국 유튜버, 촬영 중 실수로 우크라 국경 넘었다...

박찬욱, 칸 초청에 "기쁜 봄소식...오래 기립박수 칠...





[우크라 침공] 반크, 4개 언어로 반전 포스타' 제작해 SNS 배포
[우크라 침공] 우크라가 일깨운 민주주의 교훈 "평범한 시민이 진짜 영웅"
[우크라 침공] 아스트렌스카, 리옹오픈 테니스 준우승...상금 전액 기부
1주일 전 보트로 피난한 아스트렌스카, WTA 투어 결승 진출
리옹오픈테니스 4강 진출 아스트렌스카 "우크라이나 위한 승리"
[우크라 침공] '보트 탈출' 아스트렌스카, 리옹오픈 테니스 8강 진출
[우크라 침공] '보트 탈출' 아스트렌스카, 리옹오픈 테니스 8강 진출
[우크라 침공] '보드 탈출' 아스트렌스카, 리옹오픈 테니스 8강 진출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09 10:55 송고

#테니스 #우크라이나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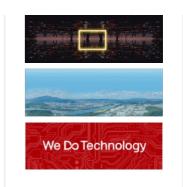
현장 영상 →

▶ 01:18 **▶** 02:22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명상] 곡사포·수송헬기·정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된 링컨 등 후보군"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오늘 거리두기 해제 발표, 2년 1개월만 종료...마스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

尹 당선인 "韓,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美와더 강력한 동맹"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36 찰에 고발

2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0 대병원 자원봉사

3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뭐하고 놀까?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